선 · 악 함께 보면서 둘 아닌 도리 배우라

☞ 19면에서 계속

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니까 그냥 갈 수가 있지 모른다면 그냥 갈 수가 없죠. 모두가 자기 앞에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이 지금 다 무너져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내 몸은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는데 자식은 버릴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버리세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나를 버렸으니 자식도 버리고 그 버린 마음에서 애착을 딱 끊은 뒤에서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잘 해주세요. 착을 놓으시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길을 못 가거든요. 그리고 더 망가지구요. 그런데서 진짜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버리면 마음 편안

그러니깐 뭘 하나 하는 데도 좀 편안하게 마음을 내주곤 해야 될 텐데 편안치 못하면 그 가정까지도 편안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항상 자식들도 그렇고 애들까지도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찾게끔 하고 그 이치를 한마디 가르쳐주더라도 뜻을 가르쳐 주시란 얘기죠. 그러면 커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벌어진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이 계시니까 죄가 있다고 그러고 죄도 없다고 그러고, 일이 생기고 자식들 때문에 급급한 생각이 나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다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왜 내가 산천초목에 이런 돌로 화해서 서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그냥 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아니까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 자기 혼자 말을 막 하고 갔어요, 화가 나서. 막하고 갔는데 그 말이 다 소문이 퍼진 거죠. 소문이 퍼져서 까치 까마귀 할 거 없이 벌레들이 다 알고 뜻으로 아는데는 다 지저귄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세계 십 개국의 말이 다 다르지만 말을 배우지 않아서 할 줄 몰라도 그 뜻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종교라는 게 그렇게 많아도, 이번에 바티칸 나라의 총 관할 대사님이 우리를 영접을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회장님도 계시고 모두 스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 나만 층층대 올라가는데 불잡아 주고 그래서 좀 때로는 민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이 볼 때에 나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것 좀 내 마음은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글쎄.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니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고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뭘 그렇게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자기가 마음 쓰고 행동하고 남이 보지 않아도 자기가 마음을 쓰는 대로 우주 공간에 다 음파가 조절되면서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에누리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억울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걸 가만히 보면 억울한 것은 자기가 모자라서 억울한 거지 자기가 자라면 왜 억울합니까. 억울하더라도 자기 본성대로 그대로 뚜벅뚜벅 앞을 보고 지키고 나간다면 그대로 공장 안에서 사회로 벗어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칠석과 백종이 며칠 안 남았는데 생각할 때에, 칠석이다 하면은 산 사람들이 밝아야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자손이 밝아지죠? 내 위로는 조상님들이란 말입니다. 조상님들을 밝게 해드려야 만이 훌훌 털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훌훌 털고 나서야 종자가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양면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둘이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칠석이나 백종이나 마음의 촛불을 켜시라 이런 거죠. 마음의 촛불을 켜라. 마음의 촛불을 켜고 관하면서 도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 하나 하나가 전파가 될 건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뭐 설법하네 뭐 하네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정성이 덜 할까봐 이렇게 오늘 겸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칠석날 백종날은 그대로 여러분이 없든 있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옛날에는 자손들을 많이 낳아도 낳는 대로 키웠지 아이를 지우거나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 칠 남매를 두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가르치고 하려면 얼마나 그거 참 피땀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위로는 좀 가르치고 밑으로 막내를 가르치질 못했어요. 부모들은 쇠약하고 위로 형들이 좀 도와서 해야할 텐데 도와서 하질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는 판인데 부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남의 집 품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아주 가난해서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제각끔들 사는데 막내는 더 어렵고 가난한데 그래도 괜찮게 사는 형이 아우를 조금도 돕질 않거든요.



그림 · 최주현

마음 쓰는대로 우주에 퍼져 모두 알게 돼

조상님 밝게 하면 훌훌털고 나설 수 있어

소꿉장난 같은 인생사

그러니깐 가뜩이나 가난한 동생이 형네 집에 가면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안가는 거죠. 그냥 굶더라도 안가고 있는데 어머니 제삿날 이런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자기가 먹는 냉이를 캐다가 말갛게 씻어서 보리죽을 쑤든 뭐 쌀죽을 쑤든 쑤어 가지고는 자기 먹을 거를 퍼서 어머니나 아버지 상에 놓는데 그것도 받쳐서 올릴 상이 없어서 장독자리 놓는, 뭐 장독자리도 원만히 돼 있겠습니까만 그 위에다가 놓구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면서 이렇게 못난 아들이 어머니 제사 때 한번 가 뵙지도 못하고 한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형네 집을 가니까 부모님들이 형 집을 안가고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어서 가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해놓은 것부터 먹고 형네 집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보시고 자기네 집으로 와서 장독자리에 있던 죽 쑤어 놓은 거를 방으로 들여다가 드렸더니 맛있게 잡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고는 '난 네 큰 형네 집으로 간다. 잘 살거라.' 이러구선 가시더래요. 그랬는데 그 해에 농사짓는 부잣집에서 마름을 얻었대요. 마름을 얻어 농사를 지어서 집을 한 칸 사게 됐고 밥을 굶지 않고 살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마음이·지극해서요. 부모로 보였든 부모 아닌 모습으로 보였든 간에 마음이 지극하니까 그 모두가 감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가도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전파를 통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얼른 쉽게 말해 부모님이 굶어 다 죽게 돼서 뭐를 좀 훔쳐다가 해드렸다면 이건 도둑질이 아닌 도둑질이죠. 도둑질도 여러 가지죠. 그냥 하고 싶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하고 습이 그래서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애틋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참회를 하고 주인공에 관하면서 또 참회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다 못해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가고 자식이 잘될 것입니다.

마음의 촛불켜고 관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주머니를 좀 벗어나자 하는 거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머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데에, 공생이라든가 공심이라든가 이 도리를 알고서 항상 실천을 하고, 주인공에 다 맡기고 하다 보면, 잘해야 하는 거를 못해도 그럼 괜찮으냐, 도둑질을 해도 주인공에다 관하면 되느냐, 그건 안되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독일에 가서는 말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상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방송국에서 깨달았다는 분들을 컴퓨터에 넣어서 점검해본다고, 어떻게 된 거를 몰라서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분 같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는 반대를 하죠. 스님을 실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를 하면서 한 몸으로서 한생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서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나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훌훌 털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다니다 보니까요. 백혈이라든가 무슨 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약을 지속으로 먹는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딴 데가 망가져서 죽게 되는 이치가 생기죠. 그러니깐 조심하시고 만약에 병원에 가시더라도 50%는 자기 자신이 그걸 알고 병원에 다녀도 다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약속하면서, 주머니 안이라고 하니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머니 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정말이지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는 생각이 부쩍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늘이 오늘 무너진다 하더라도 겁이 하나도 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겁이 납니까. 다 같이 살다가 다 같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겁이 납니까, 또 혼자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겁이 납니까. 우리가 먼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만이 그 밑에 연관된 사람들도 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러한 겁니다.

※위 법문은 1999년 8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청신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걸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또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
〈태몽, 그 출생의 비밀〉〈꿈풀이 삶풀이〉
■ 부록 〈길흉 부부궁합〉

경견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점쟁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화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評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 김성진 저/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저/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개의 개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저/정가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월부터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고객부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해지 방법
① 독자번호 (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은행	결제 조건	이체 희망일
농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 (단, 우체국 · 수협은 제외)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만큼만 납부됩니다.	매월 5, 15, 25일 중 선택

②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되므로 신청 당월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